

민주연구원 '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3 : 인천시민의 눈물'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1월 21일(수), “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3편 : 인천시민의 눈물”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.
-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,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인천, 22일 대전, 23일 울산 등 해당 지역의 평가 보고서를 매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, 다음 주 26일부터 도 지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.
 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“정책브리핑 특별호 3편, 인천시민의 눈물’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리스크와 민생정책을 평가”했으며, “글로벌 톱텐 시티, 제물포 르네상스, 포물러원 유치 등 거창한 구호에 비해 실제 사업 진행은 매우 느린 인천 시정의 정책 실패를 정리했다”고 설명했다.
 -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민이 유정복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”라고 덧붙였다.
- 이번 정책브리핑은 유정복 시정의 문제점을 3가지 관점에서 정리했다.
- 첫째, 시장 리스크다. 비상계엄이 1년 지난 시점에도 계엄의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여기고, 유 시장 및 측근 6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곧 시작되는 점을 설명했다.
 - 둘째, 정책 실패이다. ‘뉴홍콩시티’, ‘글로벌 톱10 시티’, ‘제물포 르네상스’ 등 거창한 구호의 사업 진행은 부진한데, 유 시장은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도심 포물러원(F1)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.
 - 셋째, 민생 외면이다. 소상공인 폐업이 2022년 취임 이후 2년 만에 매년 1만명 늘었지만 인천e음카드 축소 등 효과성 좋은 전임 시장의 대표 사업을 축소했다. 또한, 지난 1월 8일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통합돌봄 준비 점검 결과 인천의 준비율이 52%로 전국 (평균 82%)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.

-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“유정복 시장의 가장 큰 실정은 전세사기 대응 부족”이라고 지적했다. 채 연구위원은 “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세 분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대응 정책이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이었고, 지원 대책도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”을 설명했다.